

아침세평

김진구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장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슬로건이다. 한 명 한 명이 지극하게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부모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교육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설정한 지향점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책 중에서도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이 우리 시교육청의 첫 번째 주요 시책이다.

학생에게 학업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학생의 성적이 1등일 수는 없다. 세상은 급변을 넘어, 격변의 시대이다. 학업 실력만이 전부가 아니라 각 분야의 실력이 필요하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자신의 소질,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양성 교육이다. 따라서 다양한 실력이 학생들의 미래이기에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광주교육의 슬로건과 지향점은 일맥으로 통한다. 광주교육 가족들은 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시대가 오기를 꿈꾸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협력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는 주체로 성장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이를 실천하는 광주교육

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교육 생태계의 모형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를 반영해 개설했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탐구하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74명의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8개 분야에 참여해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총 9회에 걸쳐 진행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사업이기에 학부모나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소개한다.

자신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는 ‘심리로 보는 나’(감정 관리 및 자기 이해를 심화시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이 분야 진로 탐색)와 ‘나의 기록 포트폴리오’(자신의 이력서, 에세이, 시각 자료 등으로 진학이나 취업 준비물 제작)가 있다.

관심 분야 프로그램으로는 ‘영화제 기획’(영화 비평, 홍보, 게스트 초대 등 영화 관련 실무적 기술을 익힘), ‘공간 건축’(건축·설계과정들을 학습하고 현장을 방문해 실제 공간 재설계 아이디어를 제시함), ‘단편소설 창작’(단편소설을 써보고, 책 디자인과 편집까지 학습), ‘미디어아트’(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을 배워 전시 작품까지 제작), ‘영화비평’(영화 분석과 비평 글쓰기), ‘지속가능한 비건 베이킹’(비건 재료를 사용한 레시피 개발과 환경의 가치를 베이킹에 담아 봄)으로, 하반기에도 열거한 프로그램 중 4개 분야가 현재 진행 중이다.

삶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상반기 결과 공유회는 각 팀마다 독특한 기획력을 발휘해 프레젠테이션, 전시, 시식, 공연을 선보였다. 단순한 발표를 넘어 커뮤니티 이벤트였다. 청소년들의 창의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 실천의지 등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했을 때 보여준 주도적 활동은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쳤다.

나는 이 공유회에 참석해서 감동에 젖었다. 내가 다시 고등학생이라면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 내 삶의 주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선택하라고 한다면 공간 건축과 단편소설 창작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었다.

이 발표가 진행된 삶디자인센터는 과거 광주학생회관이었다. 수십 년 전, 이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건너 공연장 무대에서 문학의 밤을 개최한 일들이 교차하면서 아련했다.

광주학생회관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8년 이곳 동구 황금동에 개관했다. 학생들의 꿈과 특기를 키우는 보급자리 역할을 했다. 도서관과 공연장이 함께 있는 유일한 시설이었다. 도서관에서 실력을 쌓아 꿈을 이뤘고, 공연장에서 끼를 선보여 각자의 재능을 키울 수 있었다. 이후 46년간의 황금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014년 화정동 중앙공원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란 새로운 명칭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광주 청소년들이 항일 독립 정신을 간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터전으로 재탄생한 것이 바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다.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적, 역사적, 민주적 유산을 오늘날 청소년 미래와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는 인사말을 통해 축복과 행운을 함께 받은 청소년들이라고 축하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삶디자인센터와 더 협업해 확산·발전시켜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하반기 발표 공유회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해 다양한 실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광주 청소년들의 기상을 보고자 한다.

기고

김도균

순천대학교 교수



올해들어 강원도 강릉은 108년 만에 가장 적은 여름 강수량(187.9mm)을 기록했고 국가 가뭄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더이상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남도 또한 빈번해진 가뭄과 홍수, 미래 농업수 수요 등으로 물관리 여건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3년 8월 전남도에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해 수자원 확보와 물 공급 등 도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토대를 마련했고, 2025년 9월 10년간의 청사진인 ‘통합물관리 기본계획(2025~2034년)’을 수립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의 안정적 공급이다. 농업과 산업, 생활용수가 균형 있게 확보돼야 지역의 경쟁력이 유지된다. 이를 위해 빗물 저장, 재이용수 활용, 해수 담수화, 지하수 관리 등 다변화된 수자원 확보 전략은 필수다. 여기에 노후 상수도 관망을 보수하고 누수를 줄이는 작업은 물을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이다.

전남 통합물관리로 체계적인 물관리 나선다

기존 수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물순환혁신법은 ‘물의 순환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역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화로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지역에서도 물순환이 심각하게 저해된 지역을 과학적 평가를 통해 촉진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 집중호우·홍수 등 물관리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만 3000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들어 200년 빈도 강수량을 초과해 나주시는 418mm, 담양군은 381mm의 비가 내렸으며, 시간당 147.5mm가 내린 함평군은 극한 호우로 주택·상가, 농작물, 가축 등 피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제는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인공기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수·가뭄 예경보 체계, 지역 맞춤형 비상급수망은 도민의 안전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장치다.

영산강의 수질 문제, 섬진강 하류의 염해, 가축분뇨와 농업 비점오염원 등은 전남이 품고있는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단기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넘어 습지와 하천 생태계 복원, 불투수면적 축소, 빗물 순환체계 강화 등 건전한 ‘물

의 순환’을 회복해야 한다.

또 물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섬진강댐 물 배분 문제, 영산강 보 처리방안 등 물을 둘러싼 갈등은 늘 존재했다. 문제는 이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전문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물관리 거버넌스를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다. 물 시장은 전례적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 담수화, 정수·재이용, 스마트 물관리 같은 첨단 기술은 전남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 물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투자는 곧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재난을 막는 안전망이자, 농어촌의 생명줄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전남도의 통합물관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핵심전략이다.

모든 도민들의 관심, 지속적 상황 변화의 파악, 이에 따른 유연한 적용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이 아말로 도민과 행정, 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물 걱정 없는 전남’,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다.

가장 빛나는 명절 추석, 행복은 안전으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지역에서만 총 4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약 3억 8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특히 이중 주거시설(아파트 등)에서의 화재가 19건(41.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상시보다 10% 이상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1건(4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사소한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묘와 별초 과정에서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나 부주의한 화기사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0.2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소(146.5명)보다 23.7명 더 많은 것으로,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장거리 귀성길에서는 졸음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최근에는 연휴기간 등 산재 증가로 인해 산악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보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

기 바란다.

성묘와 별초를 할 때는 라이터 등 화기 사용을 삼가고, 예초기 사용 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 장시간 집을 비우는 가정은 집을 비우기 전 가스 밸브와 전기차단기 등을 꼼꼼히 확인,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길 바란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틈틈이 충분한 휴식을 해야하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에게 소화가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보는 것도 권하고 싶다.

값비싼 선물보다,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소방시설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명절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며 그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다.

안전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이며, 작은 관심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이번 추석이 시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안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웃음과 행복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

OPINION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사설

‘무안공항’ 조속한 사고 규명·재개항 절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이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이후 10개월째 사고조사와 안전점검 계획 등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재개항과 관련 구체적 일정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고사위기에 빠진 지역 여행업계와 관광업계는 정부에 공항 재개항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여행업자 등 8000여명으로 구성된 ‘무안공항재개항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안공항의 정상 운항을 위한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즉각적인 재개항 결정과 구체적 일정 발표’, ‘사고 조사 및 안전 점검 계획의 전면 공개와 투명성 확보’, ‘여행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 금융·세제 지원 및 교통안전 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무안공항이 참사이후 10개월째 완전 폐쇄되면서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성수기에도 신규 예약이 거의 없는 등 지역 관광 여행업 전반이 붕괴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풀이되고 있다. 관광객을 모객해 송출하는 여행업계가 지난 6월까지 추정된 매출 손실만도 1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 여행업계의 매출이 참사이전보다 7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추석명절 특수 손실까지 포함하면 매출손실이 2000억 원대까지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더디기만 하다.

당초 국토부가 지난달 말까지 하기로 했던 참사 조사결과와 발표는 연말로 미뤄졌고 콘크리트 둔덕 철거와 조류충돌 예방강화 등 항행안전시설 개선 사업도 당달야 차질을 빚고 있다. 오랜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 항공노선 취항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재개항 시기 또한 불투명해졌다.

무안공항은 연 20만명이 이용하는 호남권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호남권 지역 1000여개 여행사와 가족·직원들의 삶터다.

하루빨리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관광업계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무안국제의 조기 재개항을 서둘러야 할 때다.

광양·영암 수소도시 조성, 차질없이 추진

전남 서부권인 영암 삼포지구에 정부 주관 수소도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 주관 내년도 제4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수소시는 정부의 대표적인 수소경제 육성 사업으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선정은 전남에서는 동부권인 광양시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영암 삼포 지구는 국내 최초로 농업부산물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수소도시가 조성된다.

왕겨·벼짚·무화과 줄기 등 전남의 풍부한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연간 730t의 수소를 생산하고 1.7km의 수소 배관을 구축하는 등 청정수소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업 부산물 기반 수소 생산은 유럽·미국 등 50여 개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용차 수소차 전환 등 교통 부문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조선업이 집적된 대불국가산단에 용접용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도 병행한다고 한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115억원을 포함한 총 35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선정된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광양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된 데 이어 지난 2월 수소생산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물을 전기 분해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공법인 수전해방식을 최적안으로 도출했다.

이 공법은 수소생산 방식 중 친환경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데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같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확정된 뒤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국비 200억원 등 4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수소 생산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에도 수소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 육성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촉촉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철저한 사업 관리로 이들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회장 양진석 부사장·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